

News

은행 BIS 비율, 3분기 만에 반등

한국경제

국내 은행의 BIS 기준 총자본비율이 16.02%로 6월 말보다 1.46%포인트 올라.... 바젤III 최종안을 조기 도입한 결과....

"중소기업 대출에 대한 위험가중자산 비율을 완화한 바젤III 최종안을 계획보다 1년반 이상 빠른 올해 2분기부터 적용한 영향으로 수치가 개선됐다"

라임 판매 은행 8개나 되는데… 금감원, CEO 중심계 고수할까

조선일보

라임자산운용 펀드를 판매한 은행에 대한 제재심의위원회가 내년 2월쯤 열릴 예정... 금융당국이 은행권에 대해서도 전·현직 CEO에 중징계를 내릴지 주목....

라임펀드를 판매한 은행은 총 8개사.... 판매규모는 우리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순....

소상공인 1차 이차보전대출 소진 임박…하나·SC 이어 신한도 종단

뉴스1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등을 위해 마련된 시중은행의 '1차 이차보전 대출'이 소진....

전날 기준 이차보전 대출 소진율은 KB국민은행 87%, 우리은행 99.7%, 농협은행 82.4%...

은행들, 소송대비하려 창구서도 상담 녹음

매일경제

시중은행은 내년 3월 금소법 시행에 따라 오프라인 창구에서 모든 상담 내용을 녹음·녹화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은행이 고객에게 설명을 충분히 제공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녹취 방법밖에 없는지에 대해 당국과 논의 중"

부동산 투자로 다시 눈 돌리는 생보사 왜

데일리안

국내 빅3 생명보험사들의 부동산 투자 규모가 올해 들어 5000억원 넘게 불어나... 투자 여건이 악화되자 부동산이 다시 대안으로 주목을 받는 모습....

부동산 시장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너무 크다는 우려도.... "실물경제의 성장이 동반되지 않은 현재의 부동산 가치 폭증은 정상적인 현상이라 평가하기 힘들다"

병원, 보험사에 전자서류 전송 위법 아니다…힘받는 실손청구 간소화

머니투데이

의료기관이 보험회사에 환자의 진료비 관련 기록을 전자문서 형태로 보내는 것이 의료법과 충돌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이 나와...

의료계가 전자서류를 전송하는 대상이 보험사라는 이유로 이를 거부하는 것은 '반대를 위한 반대'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게 돼...

금감원 확진자 발생에 '라임 증권사 과태료' 논의 증선위 연기

뉴스1

금감원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라임자산운용 펀드를 판매한 증권사에 대한 과징금·과태료를 논의하기 위한 증권선물위원회 정례회의도 연기...

9일 취소된 증선위는 다음 주(14~18일) 중 하루 날을 잡아 열릴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커지는 퇴직연금시장…증권사들, 고객유치 팔 걷었다

더팩트

'내년 1월부터 '퇴직연금 이전 간소화' 정책 시행이 예상되면서 증권사마다 연말 퇴직연금 신규 투자자모집을 위한 경쟁이 치열해질 전망....

3분기 기준 국내 퇴직연금 적립금은 224조7159억 원으로 지난해 말과 비교했을 때 7조4169억 원 증가....

Compliance Notice

본 조사분석자료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 당사는 자료작성일 현재 본 조사분석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는 자료작성일 현재 해당 종목과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입력이나 간섭 없이 신의 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본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당사의 허락 없이 복사, 대여, 배포 될 수 없습니다.